

2022년 전국 최저임금 설문조사 결과 분석

이창근 민주노동연구원 연구위원

2022. 6. 27.



보고서는 민주노동연구원 홈페이지(kctuli.kctu.org)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자료문의: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 | 주소: 04518 서울 중구 경동길 3 경향신문사 13층
전화: 02-2670-9221 팩스: 02-2670-9299 이메일: kctu-li@nodong.org

민주노동연구원의 연구보고서 및 이슈페이퍼는 민주노총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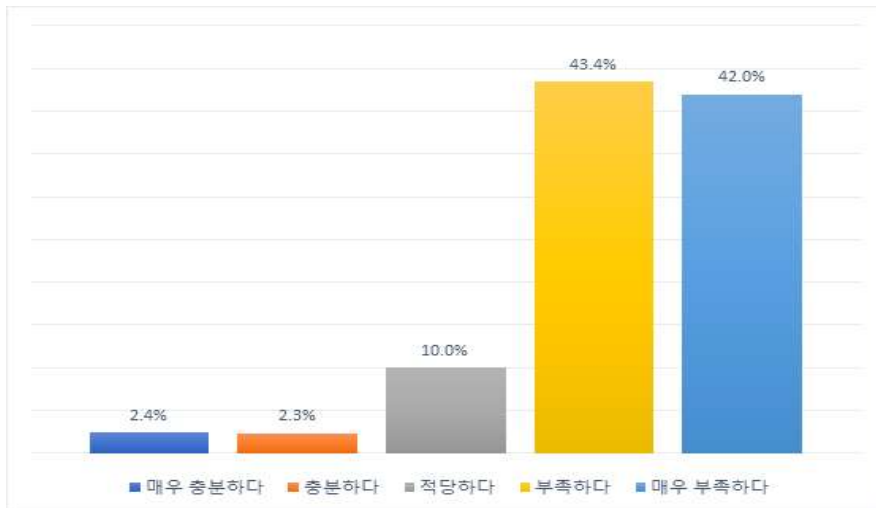
〈요약〉	i
1. 서론	1
2. 응답자 특성	2
3. 주요 분석 내용	
1) 가구 특성	3
2) 노동시간임금·가구소득	5
3) 생계비	9
4) 생활물가에 대한 체감	10
5) 올해(2022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인식	12
6) 최저임금 인상과 경영상 어려움실직 사유	13
7) 최저임금의 주요 결정기준	15
8) 내년(2023년) 최저임금 걱정 수준	16
4. 요약 및 시사점	19

요약

민주노총은 2022년 6월 7일 ~ 6월 21일까지 전국에서 노동자와 시민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 방식은 강원도를 제외한 16개 광역자치단체의 주요 시내 거점에서 설문지를 나눠주고, 현장에서 응답자가 설문지에 직접 기입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전체 조사 참여자는 1,875명이며, 그중 노동자는 1,766명, 사업주/자영업자는 109명이다. 조사 결과에 대한 주요 분석 내용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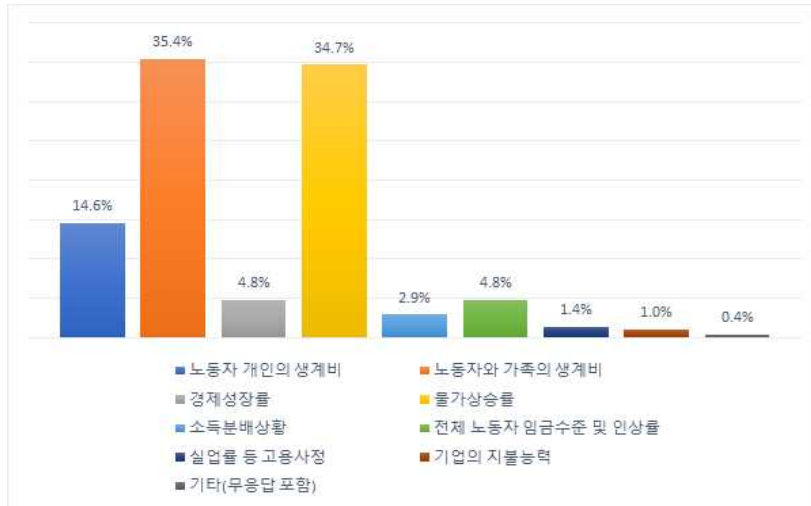
첫째, 응답자 10명 중 8~9명은 올해 최저임금(시급 9,160원)이 본인과 가족이 살기에 부족하다고 응답했다. 가구 규모별로 살펴보면, 1인 가구는 88.2%, 2인 가구는 84.7%, 3인 가구는 85.9%, 4인 가구는 83.5%, 5인 이상 가구는 86.4%가 부족하다고 응답했다. 현행 최저임금의 절대적 수준이 가구생계비를 감당하기에는 매우 역부족임을 시사한다.

[그림 1] 2022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노동자 인식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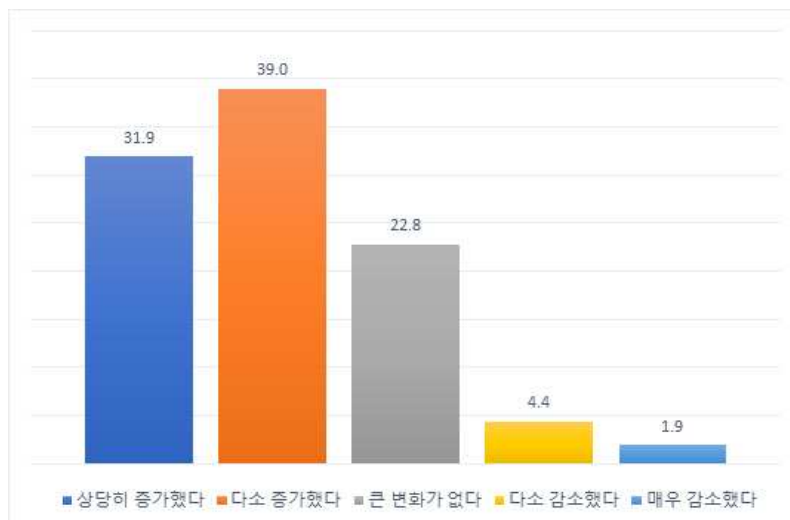
둘째, 응답자 2명 중 1명은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첫 번째 기준으로 생계비를 꼽았다. 생계비 중에서도 ‘노동자와 가족의 생계비(35.4%)’에 대한 응답률이 ‘노동자 개인의 생계비’(14.6%)보다 높게 나타났다. 제2순위 결정기준으로는 물가상승률(30.5%)에 대한 응답률이 가장 높았다. 최저임금이 가구생계비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은 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가 있음을 시사한다.

[그림 2] 최저임금 결정기준(제1순위)에 대한 인식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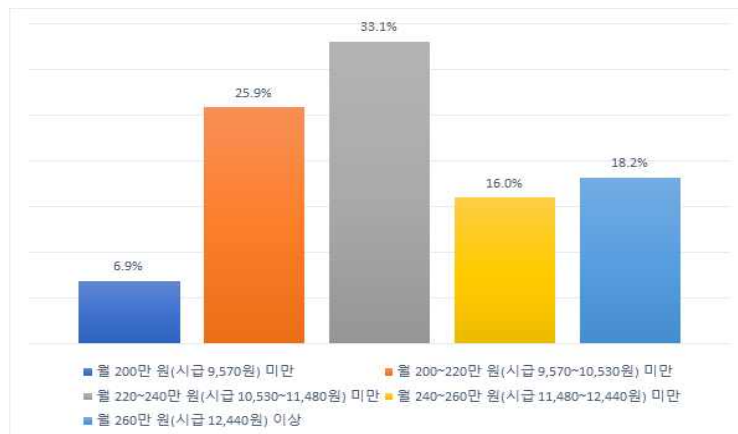
셋째, 응답자 10명 중 7명(70.9%)은 현재 생활비가 전년 동월 대비 증가했다고 답변했다. 가구 규모별로 전년 동월 대비 생활비가 증가했다(상당히 증가했다 + 다소 증가했다)고 답변한 응답자 비중은 1인 가구 69.0%, 2인 가구 73.8%, 3인 가구 74.3%, 4인 가구 69.4%, 5인 이상 가구 63.7% 등으로 나타났다. 생활비가 증가했다고 체감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가구는 2인 가구와 3인 가구였다. 이는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이 실제 생계비 상승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3] 전년 동월 대비 생활비 증감 체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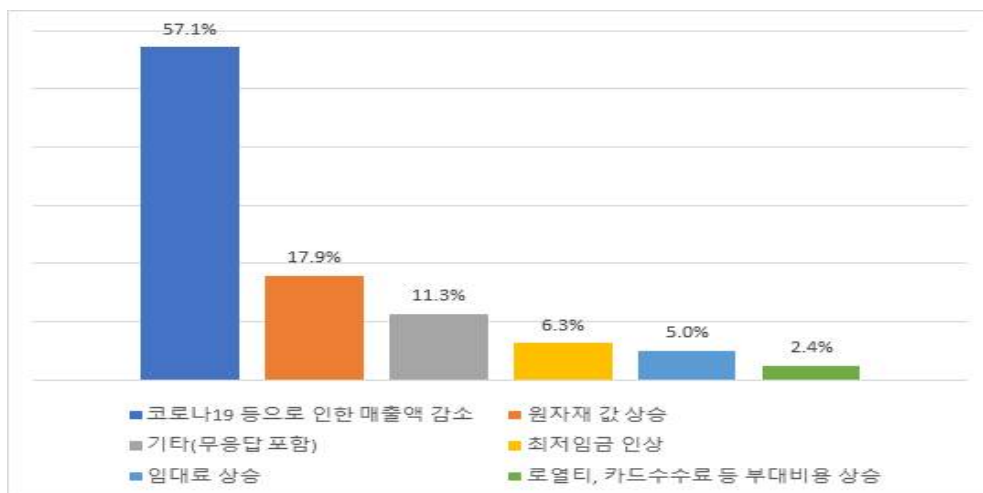
넷째, 응답자 3명 중 1명(33.1%)은 2023년 최저임금의 적정 수준을 ‘월 220~240만 원(시급 10,530~11,480원) 미만’으로 꼽았다. 두 번째로 응답률이 높은 구간은 ‘월 200~220만 원(시급 9,570~10,530원) 미만’으로 나타났다.

[그림 4] 2023년 최저임금의 적정 수준에 대한 인식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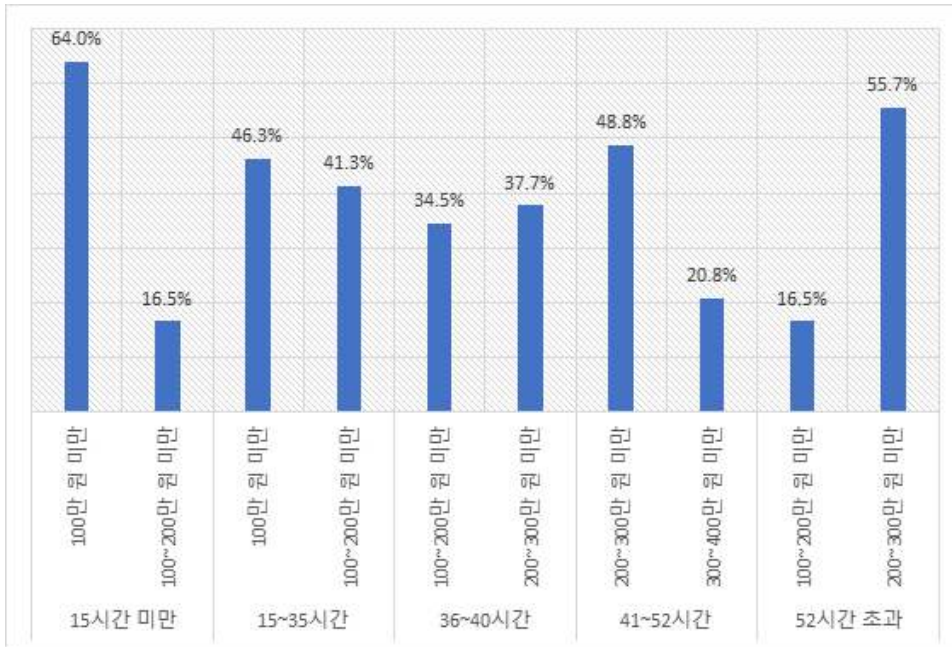
다섯째, 지난 5년 동안 현재 일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경영상 어려움을 경험한 응답자(664명)가 꼽은 주된 사유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매출액 감소’가 57.1%로 압도적이었으며, 다음으로 원자재 값 상승(17.9%) 등의 순이었다. 최저임금 인상을 경영상 어려움의 주된 이유로 꼽은 비중은 6.3%에 불과했다. 자영업자에게는 최저임금 인상보다 팬데믹 위기, 원자재 값 상승 등 다른 요인이 더 큰 충격을 주었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림 5] 지난 5년 동안 현재 일하고 있는 사업장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게 된 주된 사유



여섯째, 15시간 미만과 15~35시간 등 초단시간 및 단시간 노동자의 월 평균임금은 100만 원 미만이 각각 64.0%, 46.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초단시간·단시간 노동자의 저임금 문제가 매우 심각함을 시사한다. 한편, 36~40시간, 41~52시간, 52시간 초과 노동자의 월 평균임금은 200~300만 원 미만 구간의 비중이 모두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36~40시간 일하는 노동자 중에서도 3명 중 1명 이상(34.5%), 52시간 초과 노동자 중에서는 6명 중 1명(16.5%)이 100~200만 원 미만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동시간에 상관없이 전반적으로 저임금 문제가 심각함을 시사한다.

[그림 6] 노동시간대별 상위 1, 2순위 월 임금 구간



1. 서론

민주노총은 2022년 6월 7일 ~ 6월 21일까지 전국에서 노동자와 시민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 방식은 강원도를 제외한 16개 광역자치단체의 주요 시내 거점에서 설문지를 나눠주고, 현장에서 응답자가 직접 기입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전체 조사 참여자는 1,875명이었다.

<표 1> 조사 개요

조사 명칭	전국 최저임금 설문조사
조사 시기	2022년 6월 7일 ~ 6월 21일
조사 방법	주요 거점 대면 설문 조사

조사 목적은 노동자와 시민들이 최저임금을 둘러싼 다양한 쟁점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내년 최저임금의 적정 수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등을 파악하여, 최저임금 심의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표 2> 응답자 거주지(지역) 현황

지역	참여자 수(명)	비율(%)
서울	116	6.2
경기	164	8.7
인천	48	2.6
충북	172	9.2
세종	6	0.3
충남	92	4.9
대전	105	5.6
전북	21	1.1
광주	156	8.3
전남	123	6.6
부산	48	2.6
울산	147	7.8
경남	204	10.9
대구	150	8.0
경북	130	6.9
강원	0	0.0
제주	192	10.2
합계	1,875	100.0

2. 응답자 특성

전체 응답자(1,875명) 특성을 개괄하면 아래와 같다(〈표3〉 참조). 성별로는 여성 53.7%, 남성 46.0%이며, 연령대별로는 50대(24.1%)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20대(20.5%)와 40대(20.5%) 비중이 높았다. 그 이외에 60대 이상 19.8%, 30대 12.5%, 20세 미만 2.7%의 순으로 나타났다. 사업주 또는 자영업자가 5.8%이고, 노동자가 94.2%이다.

〈표 3〉 전체 응답자 특성

구분		응답자 수(명)	비율(%)
성별	여성	1,007	53.7
	남성	862	46.0
	그 외의 성	6	0.3
고용상 지위	노동자	1,766	94.2
	사업주 또는 자영업자	109	5.8
연령	20세 미만	50	2.7
	20대	384	20.5
	30대	234	12.5
	40대	384	20.5
	50대	451	24.1
	60세 이상	372	19.8
합계		1,875	100.0

사업주/자영업자를 제외한 노동자 응답자 특성은 다음과 같다(〈표4〉 참조). 성별로는 여성이 54.4%, 남성이 45.2%, 그 외의 성 0.3%이다. 연령으로는 50대가 23.3%로 가장 비중이 높고, 다음으로 20대(21.4%), 40대(20.3%), 60세 이상(9.5%), 30대(12.7%), 20세 미만(2.8%) 순이다. 고용형태별로는 정규직 47.4%, 비정규직 35.8%, 기타 16.8%로 나타났다. 노동조합 가입 여부의 경우, 미가입자가 거의 10명 중 7명꼴인 69.1%이며, 가입자는 30.9%이다. 응답자가 종사하고 있는 주된 일자리가 속한 부문은 민간 서비스 부문(26.3%), 민간 제조 부문(22.4%), 공공부문(22.4%), 기타(29.0%) 순으로 나타났다.

<표 4> 노동자 응답자 특성

구분		응답자 수(명)	비율(%)
성별	여성	961	54.4%
	남성	799	45.2%
	그 외의 성	6	0.3%
연령	20세 미만	49	2.8%
	20~30세 미만	378	21.4%
	30~40세 미만	225	12.7%
	40~50세 미만	358	20.3%
	50~60세 미만	412	23.3%
	60세 이상	344	19.5%
고용형태	정규직	837	47.4%
	비정규직	633	35.8%
	(특수고용·프리랜서)	(77)	(4.4%)
	기타(무응답 포함)	296	16.8%
노동조합 가입	미가입	1221	69.1%
	가입	545	30.9%
	(민주노총)	(446)	(25.3%)
	(한국노총)	(19)	(1.1%)
	(상급단체 없음)	(80)	(4.5%)
부문	민간 제조 부문	395	22.4%
	민간 서비스 부문	464	26.3%
	공공 부문	395	22.4%
	기타(무응답 포함)	512	29.0%
합계		1,766	100.0

3. 주요 분석 내용

본문의 분석은 주로 사업주와 자영업자를 제외한 노동자 1,766명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주/자영업자까지 분석 대상에 포함하도록 한다. 이 경우 포함 여부를 적시하도록 한다.

1) 가구 특성

응답자 가구의 평균 가구원 수¹⁾는 2.9명으로 나타났다. 가구 규모별 비중을 살펴보면, 4인 가구 비중이 27.7%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3인 가구(23.0%), 2인 가구(22.5%), 1인 가구(16.3%), 5인 이상 가구(10.4%) 순이었다.

1) 5인 이상 가구는 5인으로 계산함.

<표 5> 노동자 가구 규모별 비중 및 평균 가구원 수

구분		응답자 수(명)	비율(%)
가구 규모별 비중	1인	288	16.3
	2인	398	22.5
	3인	406	23.0
	4인	490	27.7
	5인 이상	184	10.4
	합계	1,766	100.0
평균 가구원 수		2.0(명)	

노동자 가구에서 함께 사는 가족 중 최근 한 달(5월) 동안 소득을 목적으로 일하는 평균 가구원 수는 2.0명으로 나타났다.²⁾ 소득원 수별 비중은 2인인 경우가 43.4%로 가장 높았고, 1인(33.7%), 3인(16.1%), 4인 이상(6.7%) 순이었다.

<표 6> 노동자 가구의 소득원 수별 비중 및 평균 소득원 수

구분		응답자 수(명)	비율(%)
소득을 목적으로 일하는 가구원 수별 비중	1인	596	33.7
	2인	766	43.4
	3인	285	16.1
	4인 이상	119	6.7
	합계	1,766	100.0
평균 소득원 수		2.0(명)	

응답자 2명 중 1명 이상(52.5%)은 본인의 임금이 가계의 주 소득원이라고 답하였다. ‘주로 개인 소비용’이라고 응답한 비중은 22.0%, 보조 소득원이라고 응답한 비중은 18.7%로 나타났다.

<표 7> 응답자의 임금이 가구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위상

구분	응답자 수(명)	비율(%)
가계의 주 소득원	928	52.5%
가계의 보조 소득원	330	18.7%
주로 개인 소비용	389	22.0%
기타	119	6.7%
합계	1,766	100.0%

2) 소득원 수가 ‘4인 이상’이라고 응답한 경우, ‘4인’으로 계산함.

2) 노동시간·임금·가구소득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38.4시간으로 나타났다. 시간대별 비중을 살펴보면 36~40시간이 44.2%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41~52시간(22.7%), 15~35시간(12.3%) 순이었다.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노동자 비중은 9.3%, 52시간 초과 비중은 5.0%였다.

<표 8> 주당 평균 노동시간대별 비중

구분		응답자 수(명)	비율(%)
주당 평균 노동시간대별 비중	15시간 미만	164	9.3
	15~35시간	218	12.3
	36~40시간	780	44.2
	41~52시간	400	22.7
	52시간 초과	115	6.5
	기타(무응답, 실업상태 등)	89	5.0
	합계	1,766	100.0
평균 노동시간		38.4	

최근 한 달(5월) 임금이 '200~300만 원 미만' 구간에 속한다고 응답한 비중이 33.7%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100~200만 원 미만(26.7%), 100만 원 미만(18.6%), 300~400만 원 미만(11.8%) 순으로 나타났다.

<표 9> 최근 한 달(5월) 임금 분포

구분	응답자 수(명)	비율(%)
100만 원 미만	328	18.6%
100~200만 원 미만	472	26.7%
200~300만 원 미만	596	33.7%
300~400만 원 미만	208	11.8%
400~500만 원 미만	92	5.2%
500~600만 원 미만	38	2.2%
600만 원 이상	32	1.8%
합계	1,766	100.0

노동시간대별로 최근 월 임금 분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발견된다.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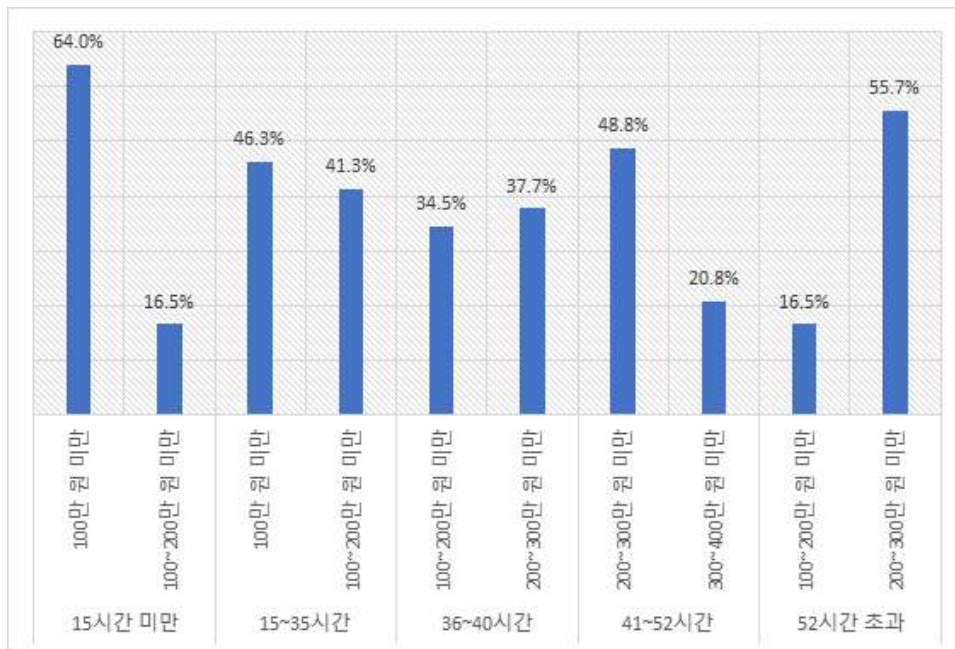
<표 10> 노동시간대별 최근 한 달(5월) 임금 분포

구분		응답자 수(명)	비율(%)
15시간 미만	100만 원 미만	105	64.0%
	100~200만 원 미만	27	16.5%
	200~300만 원 미만	19	11.6%
	300~400만 원 미만	6	3.7%
	400~500만 원 미만	5	3.0%
	500~600만 원 미만	2	1.2%
	600만 원 이상	0	0.0%
15~35시간	100만 원 미만	101	46.3%
	100~200만 원 미만	90	41.3%
	200~300만 원 미만	18	8.3%
	300~400만 원 미만	3	1.4%
	400~500만 원 미만	3	1.4%
	500~600만 원 미만	1	0.5%
	600만 원 이상	2	0.9%
36~40시간	100만 원 미만	42	5.4%
	100~200만 원 미만	269	34.5%
	200~300만 원 미만	294	37.7%
	300~400만 원 미만	101	12.9%
	400~500만 원 미만	39	5.0%
	500~600만 원 미만	17	2.2%
	600만 원 이상	18	2.3%
41~52시간	100만 원 미만	14	3.5%
	100~200만 원 미만	52	13.0%
	200~300만 원 미만	195	48.8%
	300~400만 원 미만	83	20.8%
	400~500만 원 미만	36	9.0%
	500~600만 원 미만	13	3.3%
	600만 원 이상	7	1.8%
52시간 초과	100만 원 미만	7	6.1%
	100~200만 원 미만	19	16.5%
	200~300만 원 미만	64	55.7%
	300~400만 원 미만	12	10.4%
	400~500만 원 미만	8	7.0%
	500~600만 원 미만	1	0.9%
	600만 원 이상	4	3.5%
합계		1,677	100.0

3) 기타(무응답, 실업 상태 등)로 답한 응답자는 제외함.

15시간 미만과 15~35시간 등 초단시간 및 단시간 노동자의 월 평균임금은 100만 원 미만이 각각 64.0%, 46.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초단시간·단시간 노동자의 저임금 문제가 매우 심각함을 시사한다. 한편, 36~40시간, 41~52시간, 52시간 초과 노동자의 월 평균임금은 200~300만 원 미만 구간의 비중이 모두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36~40시간 일하는 노동자 중에서도 3명 중 1명 이상(34.5%), 52시간 초과 노동자 중에서는 6명 중 1명(16.5%)이 100~200만 원 미만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6] 노동시간대별 상위 1, 2순위 월 임금 구간



가구 규모별로 최근 한 달의 가구 총소득 분포 중 비중이 높은 상위 1, 2순위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⁴⁾ 1인 가구는 200~300만 원 미만(37.8%), 100~200만 원 미만(28.0%)이며, 2인 가구는 200~300만 원 미만(26.0%), 300~400만 원 미만(20.8%)으로 나타났다. 3인 가구는 300~400만 원 미만(21.8%), 400~500만 원 미만(20.6%)이며, 4인 가구는 600만 원 이상(30.2%), 400~500만 원 미만(21.2%), 5인 이상 가구는 600만 원 이상(34.1%), 500~600만 원 미만(16.5%)으로 나타났다.

4) 노동자 본인과 소득을 목적으로 일하는 가구원의 임금을 모두 합한 소득을 말함. 다만, 응답자 중 가구 규모보다 소득원 수를 높게 작성한 사례(예를 들어, 1인 가구인데, 소득원 수는 2인이라고 기입한 경우 등)와 '모름'이라고 응답한 사례는 제외함.

<표 12> 가구 규모별 최근 한 달(5월) 가구 총소득 분포

구분		응답자 수(명)	비율(%)
1인 가구	100만 원 미만	47	17.1%
	100~200만 원 미만	77	28.0%
	200~300만 원 미만	104	37.8%
	300~400만 원 미만	29	10.5%
	400~500만 원 미만	11	4.0%
	500~600만 원 미만	4	1.5%
	600만 원 이상	3	1.1%
	소계	275	100.0%
2인 가구	100만 원 미만	36	9.3%
	100~200만 원 미만	67	17.2%
	200~300만 원 미만	101	26.0%
	300~400만 원 미만	81	20.8%
	400~500만 원 미만	48	12.3%
	500~600만 원 미만	25	6.4%
	600만 원 이상	31	8.0%
	소계	389	100.0%
3인 가구	100만 원 미만	18	4.5%
	100~200만 원 미만	28	6.9%
	200~300만 원 미만	66	16.4%
	300~400만 원 미만	88	21.8%
	400~500만 원 미만	83	20.6%
	500~600만 원 미만	53	13.2%
	600만 원 이상	67	16.6%
	소계	403	100.0%
4인 가구	100만 원 미만	13	2.7%
	100~200만 원 미만	24	4.9%
	200~300만 원 미만	36	7.4%
	300~400만 원 미만	78	16.0%
	400~500만 원 미만	103	21.2%
	500~600만 원 미만	85	17.5%
	600만 원 이상	147	30.2%
	소계	486	100.0%
5인 이상 가구	100만 원 미만	4	2.2%
	100~200만 원 미만	6	3.3%
	200~300만 원 미만	18	9.9%
	300~400만 원 미만	33	18.1%
	400~500만 원 미만	29	15.9%
	500~600만 원 미만	30	16.5%
	600만 원 이상	62	34.1%
	소계	182	100.0%
합계		1,735 ¹⁾	100.0

주) 가구 총소득 질문에 대해 모르거나 응답하지 않은 사람을 제외함.

3) 생계비

최근 한 달(5월) 가구생계비는 임금 및 소득 감소의 영향으로 인해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가구 규모별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기록한 생계비 구간은 1인 가구와 2인 가구는 100~200만 원 미만, 3인 가구는 200~300만 원 미만, 4인 가구 300~400만 원 미만, 5인 이상 가구는 200~300만 원 미만으로 나타났다.

〈표 13〉 가구 규모별 최근 한 달(5월) 생계비 분포

	구분	응답자 수(명)	비율(%)
1인 가구	100만 원 미만	88	30.6%
	100~200만 원 미만	134	46.5%
	200~300만 원 미만	44	15.3%
	300~400만 원 미만	15	5.2%
	400~500만 원 미만	6	2.1%
	500~600만 원 미만	1	0.3%
	600만 원 이상	0	0.0%
	소계	288	100.0%
2인 가구	100만 원 미만	40	10.1%
	100~200만 원 미만	149	37.4%
	200~300만 원 미만	139	34.9%
	300~400만 원 미만	34	8.5%
	400~500만 원 미만	20	5.0%
	500~600만 원 미만	9	2.3%
	600만 원 이상	7	1.8%
	소계	398	100.0%
3인 가구	100만 원 미만	19	4.7%
	100~200만 원 미만	76	18.7%
	200~300만 원 미만	134	33.0%
	300~400만 원 미만	96	23.6%
	400~500만 원 미만	54	13.3%
	500~600만 원 미만	16	3.9%
	600만 원 이상	11	2.7%
	소계	406	100.0%
4인 가구	100만 원 미만	20	4.1%
	100~200만 원 미만	52	10.6%
	200~300만 원 미만	124	25.3%
	300~400만 원 미만	129	26.3%
	400~500만 원 미만	81	16.5%
	500~600만 원 미만	45	9.2%
	600만 원 이상	39	8.0%
	소계	490	100.0%
5인 이상 가구	100만 원 미만	7	3.8%
	100~200만 원 미만	13	7.1%
	200~300만 원 미만	48	26.1%
	300~400만 원 미만	38	20.7%
	400~500만 원 미만	39	21.2%

	500~600만 원 미만	19	10.3%
	600만 원 이상	20	10.9%
	소계	184	100.0%
합계		1,766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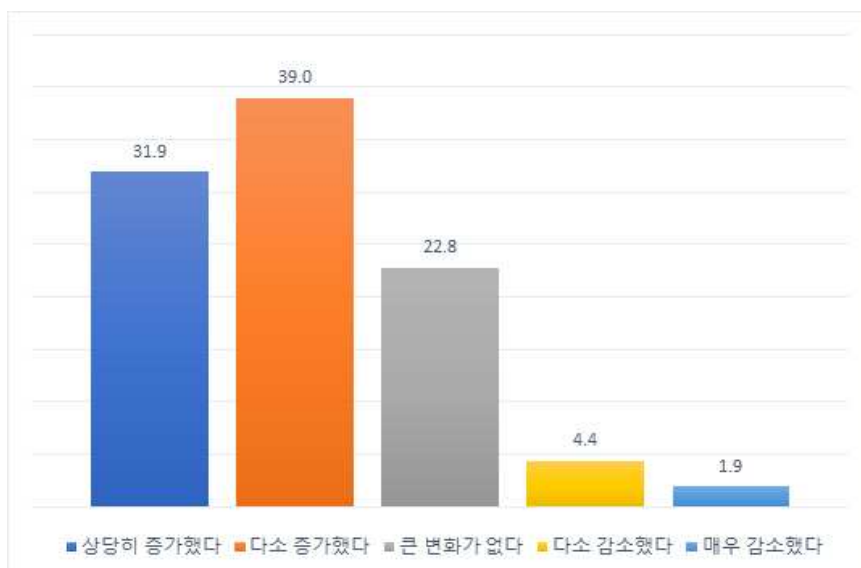
4) 생활물가에 대한 체감

사업주 또는 자영업자까지 포함하여, 전체 응답자 10명 중 약 7명(70.9%)은 현재 생활비가 전년 동월(5월) 대비 증가했다고 답변했다. 세부적으로 구분하면, ‘상당히 증가했다’고 응답한 비중이 31.9%, ‘다소 증가했다’가 39.0%로 나타났다. ‘큰 변화가 없다’고 응답한 비중은 22.8%였다.

<표 14> 전년 동월 대비 생활비 증감에 대한 인식 분포

구분	응답자 수(명)	비율(%)
상당히 증가했다	598	31.9
다소 증가했다	731	39.0
큰 변화가 없다	428	22.8
다소 감소했다	83	4.4
매우 감소했다	35	1.9
합계	1,875	100.0

[그림 3] 전년 동월 대비 생활비 증감에 대한 인식 분포



가구 규모별로 전년 동월 대비 생활비가 증가했다(상당히 증가했다 + 다소 증가했다)고 답변한 응답자 비중을 살펴보면, 1인 가구는 69.0%, 2인 가구는 73.8%, 3인 가구는 74.3%, 4인 가구는 69.4%, 5인 이상 가구는 63.7%로 나타났다. 생활비가 증가했다고 체감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가구는 2인 가구와 3인 가구였다.

<표 16> 가구 규모별 전년 동월 대비 생활비 증감에 대한 인식 분포

구분		응답자 수(명)	비율(%)
1인 가구	상당히 증가했다	79	26.3
	다소 증가했다	128	42.7
	큰 변화가 없다	69	23.0
	다소 감소했다	13	4.3
	매우 감소했다	11	3.7
	소계	300	100.0
2인 가구	상당히 증가했다	146	34.8
	다소 증가했다	164	39.0
	큰 변화가 없다	84	20.0
	다소 감소했다	20	4.8
	매우 감소했다	6	1.4
	소계	420	100.0
3인 가구	상당히 증가했다	147	33.9
	다소 증가했다	175	40.4
	큰 변화가 없다	84	19.4
	다소 감소했다	21	4.8
	매우 감소했다	6	1.4
	소계	433	100.0
4인 가구	상당히 증가했다	174	32.9
	다소 증가했다	193	36.5
	큰 변화가 없다	130	24.6
	다소 감소했다	24	4.5
	매우 감소했다	8	1.5
	소계	529	100.0
5인 이상 가구	상당히 증가했다	52	26.9
	다소 증가했다	71	36.8
	큰 변화가 없다	61	31.6
	다소 감소했다	5	2.6
	매우 감소했다	4	2.1
	소계	193	100.0
합계		1,875	100.0

5) 올해(2022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인식

사업주 또는 자영업자를 제외한 응답자 중 올해 최저임금(시급 9,160원, 월 191만 4,440원)이 본인과 가족이 살기에 충분한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부족하다’(43.4%)와 ‘매우 부족하다’(42.0%)는 응답률이 85.4%에 달했다.

<표 17> 2022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인식 분포

구분	응답자 수(명)	비율(%)
매우 충분하다	41	2.4%
충분하다	40	2.3%
적당하다	176	10.0%
부족하다	766	43.4%
매우 부족하다	742	42.0%
합계	1,766	100.0%

가구 규모별로 구분해서 올해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부족하다 + 매우 부족하다’를 합한 가구 규모별 비중은 1인 가구는 88.2%, 2인 가구는 84.7%, 3인 가구는 85.9%, 4인 가구는 83.5%, 5인 이상 가구는 86.4%로 나타났다. 현행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 부족하다고 인식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가구는 1인 가구로 나타났다.

<표 18> 가구 규모별 2022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인식 분포

구분		응답자 수(명)	비율(%)
1인 가구	매우 충분하다	9	3.1%
	충분하다	6	2.1%
	적당하다	19	6.6%
	부족하다	134	46.5%
	매우 부족하다	120	41.7%
	소계	288	100.0%
2인 가구	매우 충분하다	8	2.0%
	충분하다	10	2.5%
	적당하다	43	10.8%
	부족하다	176	44.2%
	매우 부족하다	161	40.5%
	소계	398	100.0%
3인 가구	매우 충분하다	8	2.0%
	충분하다	9	2.2%

	적당하다	40	9.9%
	부족하다	173	42.6%
	매우 부족하다	176	43.3%
	소계	406	100.0%
4인 가구	매우 충분하다	13	2.7%
	충분하다	12	2.4%
	적당하다	56	11.4%
	부족하다	187	38.2%
	매우 부족하다	222	45.3%
	소계	490	100.0%
5인 이상 가구	매우 충분하다	4	2.2%
	충분하다	3	1.6%
	적당하다	18	9.8%
	부족하다	96	52.2%
	매우 부족하다	63	34.2%
	소계	184	100.0%
합계		1,766	100.0

6) 최저임금 인상과 경영상 어려움실직 사유

사업주 또는 자영업자를 포함하여, 지난 5년 동안 현재 일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경영상 어려움을 경험한 응답자(664명)가 꼽은 주된 사유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매출액 감소’가 57.1%로 압도적이었으며, 다음으로 원자재 값 상승(17.9%) 등의 순이었다. 최저임금 인상을 경영상 어려움의 주된 이유로 꼽은 비중은 6.3%에 불과했다.

〈표 19〉 지난 5년 동안 현재 일하고 있는 사업장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게 된 주된 사유

구분	응답자 수(명)	비율(%)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매출액 감소	379	57.1%
원자재 값 상승	119	17.9%
임대료 상승	33	5.0%
로열티, 카드수수료 등 부대비용 상승	16	2.4%
최저임금 인상	42	6.3%
기타(무응답 포함)	75	11.3%
합계	664	100.0%

지난 5년 동안 경영상 어려움을 겪은 사업주 또는 자영업자(80명)로 한정해서 살펴보더라도,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매출액 감소’가 61.3%로 압도적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원자재 값 상승(17.5%), 임대료 상승(7.5%) 순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인상을 경영상 어려움의 주된 사유로 꼽은 사업주 또는 자영업자 비중은 6.3%에 불과했다.

<표 20> 지난 5년 동안 경영상 어려움을 겪은 사업주 또는 자영업자가 꼽은 주된 사유

구분	응답자 수(명)	비율(%)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매출액 감소	49	61.3%
원자재 값 상승	14	17.5%
임대료 상승	6	7.5%
로열티, 카드수수료 등 부대비용 상승	1	1.3%
최저임금 인상	5	6.3%
기타	5	6.3%
합계	80	100.0%

사업주 또는 자영업자를 제외하고, 약 3명 중 1명(31.2%)은 지난 5년 동안 실직의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꼽은 첫 번째 실직 사유로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경영사정 악화’(26.3%)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계약 만료, 공사(사업) 종료’(21.8%), 자발적 이직(19.6%) 순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고용축소’를 주된 실직 사유로 꼽은 비중은 5.6%에 불과했다.

<표 21> 지난 5년 동안 실직 경험이 있는 응답자가 꼽은 제1순위 실직 사유

구분	응답자 수(명)	비율(%)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경영사정 악화	145	26.3%
자발적 이직	108	19.6%
계약 만료, 공사(사업) 종료	120	21.8%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고용축소	31	5.6%
폐업 및 도산	43	7.8%
정년	34	6.2%
기타	70	12.7%
합계	551	100.0%

7) 최저임금의 주요 결정기준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첫 번째 기준으로 ① 노동자와 가족의 생계비(35.4%)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② 물가상승률(34.7%), ③ 노동자 개인의 생계비(14.6%) 순이었다. ①과 ③을 합하면, 2명 중 1명은 최저임금의 제1순위 결정기준으로 생계비를 꼽았다.

<표 22> 최저임금 결정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제1순위 기준

구분	응답자 수(명)	비율(%)
노동자 개인의 생계비	258	14.6%
노동자와 가족의 생계비	625	35.4%
경제성장률	85	4.8%
물가상승률	612	34.7%
소득분배상황	52	2.9%
전체 노동자 임금수준 및 인상률	85	4.8%
실업률 등 고용사정	24	1.4%
기업의 지불능력	18	1.0%
기타(무응답 포함)	7	0.4%
합계	1,766	100.0%

한편, 제2순위 결정기준으로는 물가상승률이 30.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노동자와 가족의 생계비’(19.5%), ‘전체 노동자 임금수준 및 인상률’(11.0%) 순으로 나타났다.

<표 23> (사업주/자영업자 제외) 최저임금 결정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제2순위 기준

구분	응답자 수(명)	비율(%)
노동자 개인의 생계비	161	9.1%
노동자와 가족의 생계비	344	19.5%
경제성장률	127	7.2%
물가상승률	538	30.5%
소득분배상황	135	7.6%
전체 노동자 임금수준 및 인상률	195	11.0%
실업률 등 고용사정	95	5.4%
기업의 지불능력	38	2.2%
기타(무응답 포함)	133	7.5%
합계	1,766	100.0%

8) 내년(2023년) 최저임금 걱정 수준

사업주와 자영업자를 제외한 응답자들이 꼽은 내년(2023년) 최저임금 걱정 수준은 ‘월 220~240만 원(시급 10,530~11,480원) 미만’(33.1%)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월 200~220만 원(시급 9,570~10,530원) 미만’(25.9%)이었다.

<표 24> 2023년 최저임금 걱정 수준 응답 분포

구분	응답자 수(명)	비율(%)
월 200만 원(시급 9,570원) 미만	121	6.9%
월 200~220만 원(시급 9,570~10,530원) 미만	457	25.9%
월 220~240만 원(시급 10,530~11,480원) 미만	585	33.1%
월 240~260만 원(시급 11,480~12,440원) 미만	282	16.0%
월 260만 원(시급 12,440원) 이상	321	18.2%
합계	1,766	100.0%

5인 이상 가구를 제외하고 1~4인의 모든 가구 유형에서 내년 최저임금의 걱정 수준으로 ‘월 220~240만 원(시급 10,530~11,480원) 미만’(36.1%)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5인 이상 가구의 경우, 월 200~220만 원(시급 9,570~10,530원) 미만(29.3%)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25> 가구 규모별 2023년 걱정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선호도

구분	응답자 수(명)	비율(%)	
1인 가구	월 200만 원(시급 9,570원) 미만	24	8.3%
	월 200~220만 원(시급 9,570~10,530원) 미만	79	27.4%
	월 220~240만 원(시급 10,530~11,480원) 미만	104	36.1%
	월 240~260만 원(시급 11,480~12,440원) 미만	42	14.6%
	월 260만 원(시급 12,440원) 이상	39	13.5%
	소계	288	100.0%
2인 가구	월 200만 원(시급 9,570원) 미만	23	5.8%
	월 200~220만 원(시급 9,570~10,530원) 미만	105	26.4%
	월 220~240만 원(시급 10,530~11,480원) 미만	130	32.7%
	월 240~260만 원(시급 11,480~12,440원) 미만	70	17.6%
	월 260만 원(시급 12,440원) 이상	70	17.6%
	소계	398	100.0%
3인 가구	월 200만 원(시급 9,570원) 미만	30	7.4%

	월 200~220만 원(시급 9,570~10,530원) 미만	84	20.7%
	월 220~240만 원(시급 10,530~11,480원) 미만	146	36.0%
	월 240~260만 원(시급 11,480~12,440원) 미만	66	16.3%
	월 260만 원(시급 12,440원) 이상	80	19.7%
	소계	406	100.0%
4인 가구	월 200만 원(시급 9,570원) 미만	29	5.9%
	월 200~220만 원(시급 9,570~10,530원) 미만	135	27.6%
	월 220~240만 원(시급 10,530~11,480원) 미만	156	31.8%
	월 240~260만 원(시급 11,480~12,440원) 미만	75	15.3%
	월 260만 원(시급 12,440원) 이상	95	19.4%
소계	490	100.0%	
5인 이상 가구	월 200만 원(시급 9,570원) 미만	15	8.2%
	월 200~220만 원(시급 9,570~10,530원) 미만	54	29.3%
	월 220~240만 원(시급 10,530~11,480원) 미만	49	26.6%
	월 240~260만 원(시급 11,480~12,440원) 미만	29	15.8%
	월 260만 원(시급 12,440원) 이상	37	20.1%
소계	184	100.0%	
합계		1,766	100.0

20세 미만을 제외하고 모든 연령대에서 내년 최저임금의 적정 수준으로 가장 응답률이 높은 구간은 ‘월 220~240만 원(시급 10,530~11,480원) 미만’으로 나타났다. 20세 미만은 ‘월 200~220만 원(시급 9,570~10,530원) 미만’(44.9%)이 가장 높았다.

<표 26> 연령대별 2023년 적정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선호도

구분		응답자 수(명)	비율(%)
20세 미만	월 200만 원(시급 9,570원) 미만	6	12.2%
	월 200~220만 원(시급 9,570~10,530원) 미만	22	44.9%
	월 220~240만 원(시급 10,530~11,480원) 미만	13	26.5%
	월 240~260만 원(시급 11,480~12,440원) 미만	1	2.0%
	월 260만 원(시급 12,440원) 이상	7	14.3%
소계		49	100.0%
20~30세 미만	월 200만 원(시급 9,570원) 미만	39	10.3%
	월 200~220만 원(시급 9,570~10,530원) 미만	122	32.3%
	월 220~240만 원(시급 10,530~11,480원) 미만	122	32.3%
	월 240~260만 원(시급 11,480~12,440원) 미만	47	12.4%
	월 260만 원(시급 12,440원) 이상	48	12.7%

2022년 전국 최저임금 설문조사 결과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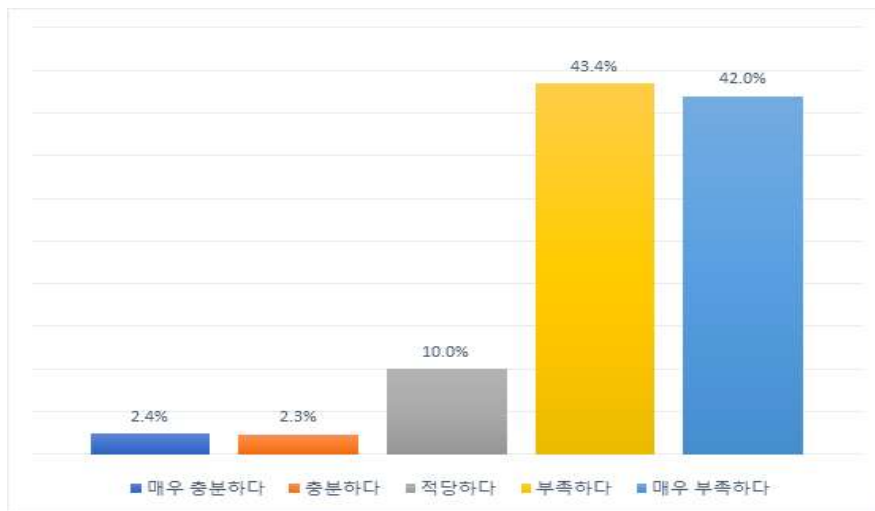
	소계	378	100.0%
30~40세 미만	월 200만 원(시급 9,570원) 미만	17	7.6%
	월 200~220만 원(시급 9,570~10,530원) 미만	44	19.6%
	월 220~240만 원(시급 10,530~11,480원) 미만	81	36.0%
	월 240~260만 원(시급 11,480~12,440원) 미만	29	12.9%
	월 260만 원(시급 12,440원) 이상	54	24.0%
	소계	225	100.0%
40~50세 미만	월 200만 원(시급 9,570원) 미만	8	2.2%
	월 200~220만 원(시급 9,570~10,530원) 미만	74	20.7%
	월 220~240만 원(시급 10,530~11,480원) 미만	118	33.0%
	월 240~260만 원(시급 11,480~12,440원) 미만	80	22.3%
	월 260만 원(시급 12,440원) 이상	78	21.8%
	소계	358	100.0%
50~60세 미만	월 200만 원(시급 9,570원) 미만	12	2.9%
	월 200~220만 원(시급 9,570~10,530원) 미만	107	26.0%
	월 220~240만 원(시급 10,530~11,480원) 미만	152	36.9%
	월 240~260만 원(시급 11,480~12,440원) 미만	63	15.3%
	월 260만 원(시급 12,440원) 이상	78	18.9%
	소계	412	100.0%
60세 이상	월 200만 원(시급 9,570원) 미만	39	11.3%
	월 200~220만 원(시급 9,570~10,530원) 미만	88	25.6%
	월 220~240만 원(시급 10,530~11,480원) 미만	99	28.8%
	월 240~260만 원(시급 11,480~12,440원) 미만	62	18.0%
	월 260만 원(시급 12,440원) 이상	56	16.3%
	소계	344	100.0%
	합계	1,766	100.0%

4. 요약 및 시사점

민주노총은 2022년 6월 7일 ~ 6월 21일까지 전국에서 노동자와 시민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 방식은 강원도를 제외한 16개 광역자치단체의 주요 시내 거점에서 설문지를 나눠주고, 현장에서 응답자가 설문지에 직접 기입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전체 조사 참여자는 1,875명이며, 그중 노동자는 1,766명, 사업주/자영업자는 109명이다. 조사 결과에 대한 주요 분석 내용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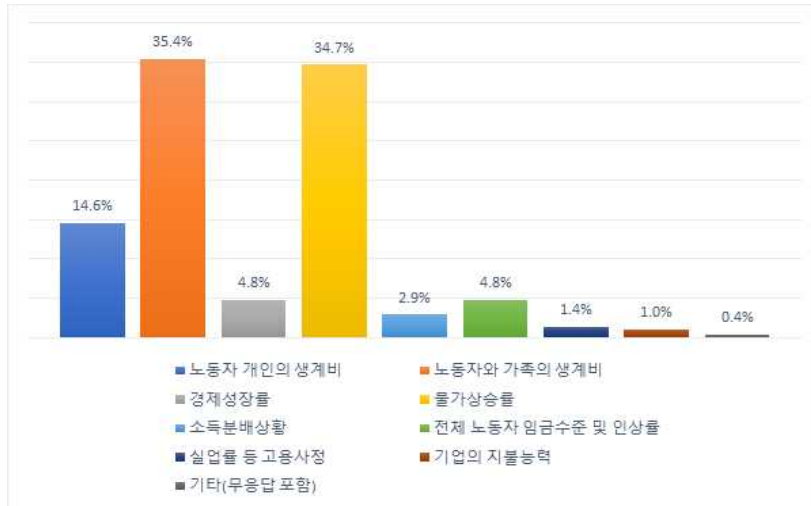
첫째, 응답자 10명 중 8~9명은 올해 최저임금(시급 9,160원)이 본인과 가족이 살기에 부족하다고 응답했다. 가구 규모별로 살펴보면, 1인 가구는 88.2%, 2인 가구는 84.7%, 3인 가구는 85.9%, 4인 가구는 83.5%, 5인 이상 가구는 86.4%가 부족하다고 응답했다. 현행 최저임금의 절대적 수준이 가구생계비를 감당하기에는 매우 역부족임을 시사한다.

[그림 1] 2022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노동자 인식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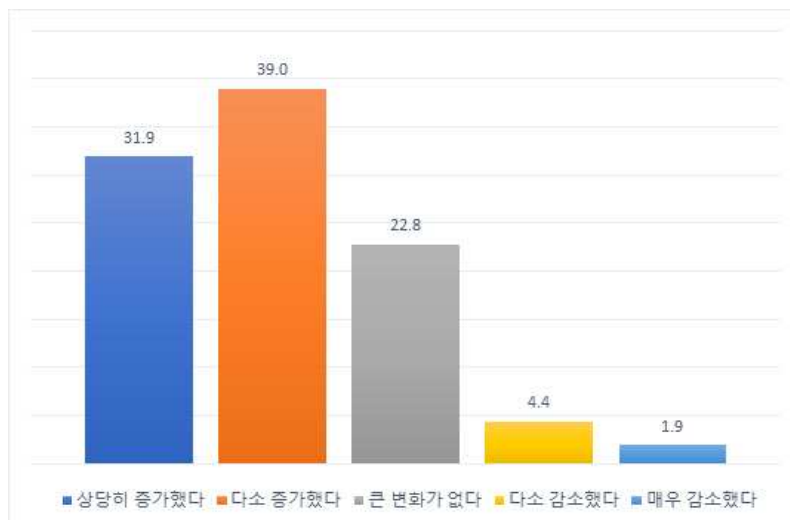
둘째, 응답자 2명 중 1명은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첫 번째 기준으로 생계비를 꼽았다. 생계비 중에서도 ‘노동자와 가족의 생계비(35.4%)’에 대한 응답률이 ‘노동자 개인의 생계비’(14.6%)보다 높게 나타났다. 제2순위 결정기준으로는 물가상승률(30.5%)에 대한 응답률이 가장 높았다. 최저임금이 가구생계비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은 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가 있음을 시사한다.

[그림 2] 최저임금 결정기준(제1순위)에 대한 인식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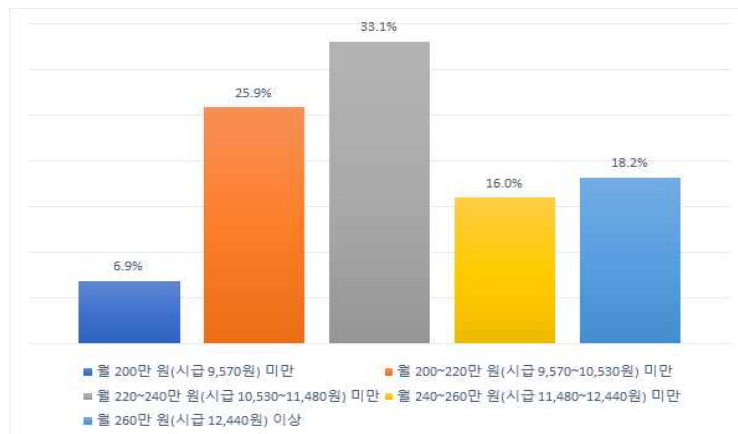
셋째, 응답자 10명 중 7명(70.9%)은 현재 생활비가 전년 동월 대비 증가했다고 답변했다. 가구 규모별로 전년 동월 대비 생활비가 증가했다(상당히 증가했다 + 다소 증가했다)고 답변한 응답자 비중은 1인 가구 69.0%, 2인 가구 73.8%, 3인 가구 74.3%, 4인 가구 69.4%, 5인 이상 가구 63.7% 등으로 나타났다. 생활비가 증가했다고 체감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가구는 2인 가구와 3인 가구였다. 이는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이 실제 생계비 상승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3] 전년 동월 대비 생활비 증감 체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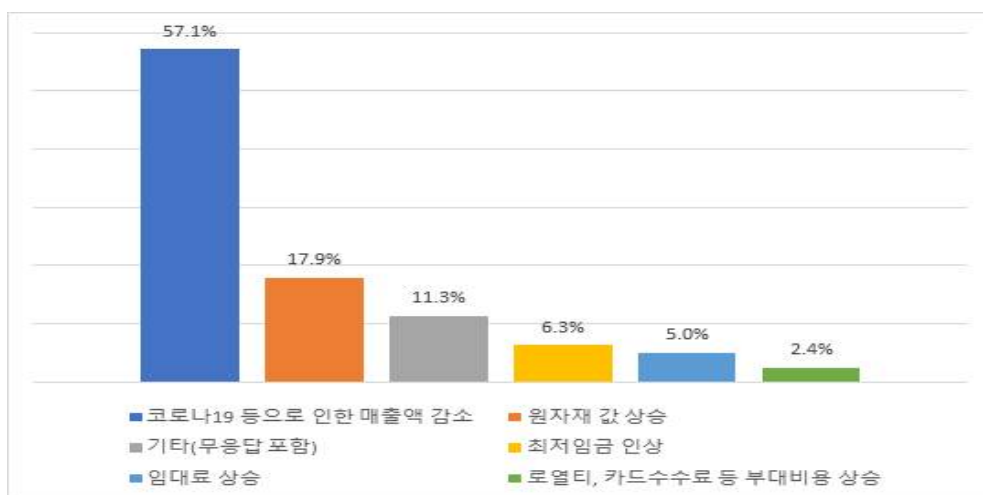
넷째, 응답자 3명 중 1명(33.1%)은 2023년 최저임금의 적정 수준을 ‘월 220~240만 원(시급 10,530~11,480원) 미만’으로 꼽았다. 두 번째로 응답률이 높은 구간은 ‘월 200~220만 원(시급 9,570~10,530원) 미만’으로 나타났다.

[그림 4] 2023년 최저임금의 적정 수준에 대한 인식 분포



다섯째, 지난 5년 동안 현재 일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경영상 어려움을 경험한 응답자(664명)가 꼽은 주된 사유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매출액 감소’가 57.1%로 압도적이었으며, 다음으로 원자재 값 상승(17.9%) 등의 순이었다. 최저임금 인상을 경영상 어려움의 주된 이유로 꼽은 비중은 6.3%에 불과했다. 자영업자에게는 최저임금 인상보다 팬데믹 위기, 원자재 값 상승 등 다른 요인이 더 큰 충격을 주었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림 4] 지난 5년 동안 현재 일하고 있는 사업장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게 된 주된 사유



여섯째, 15시간 미만과 15~35시간 등 초단시간 및 단시간 노동자의 월 평균임금은 100만 원 미만이 각각 64.0%, 46.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초단시간·단시간 노동자의 저임금 문제가 매우 심각함을 시사한다. 한편, 36~40시간, 41~52시간, 52시간 초과 노동자의 월 평균임금은 200~300만 원 미만 구간의 비중이 모두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36~40시간 일하는 노동자 중에서도 3명 중 1명 이상(34.5%), 52시간 초과 노동자 중에서는 6명 중 1명(16.5%)이 100~200만 원 미만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동시간에 상관없이 전반적으로 저임금 문제가 심각함을 시사한다.

[그림 6] 노동시간대별 상위 1, 2순위 월 임금 구간

